

쿠웨이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8천 km ²	G D P	1,762억 달러 (2014년)
인구	399만 명 (2014년)	1인당 GDP	44,850달러 (2014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Kuwait Dinar (LD)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0.2845 (2014년)

- 쿠웨이트만 남쪽 연안에 있는 경상북도 크기의 국토를 보유한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고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음.
- 쿠웨이트인이 31%에 불과하고 그 외 아시아인과 아랍인이 대다수를 차지함. 수니파 중심의 이슬람 국가이나, 외국인을 위한 카톨릭 및 개신교를 허용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일부 보장되는 등 비교적 개방적인 국가임.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0년 이라크의 침입으로 점령당하여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에 의하여 해방된 바 있음. 2006년 즉위한 Emir Sabah al Ahmad al Jabir al Sabah 국왕이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으나 고령의 나이로 왕위 승계와 관련한 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인구 약 4백만, 국토면적 1만 8천 km²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6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저유가 지속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유지 전망

- 쿠웨이트의 경제성장은 원유수출 수입(收入)을 투자하여 공공 부문 고용을 늘리는 방식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세계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신흥국의 원유수요 감소로 한계에 직면함.
- 2014년에는 공공투자 증대로 경기 진작을 도모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도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1.9%에 그칠 전망이다.
 - IMF, 미 에너지정보청(EIA) 등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인한 쿠웨이트의 원유수출 수입 감소가 GDP의 18%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재정수지 흑자 축소 전망

- 쿠웨이트의 재정수지는 국가 재정수입의 약 95%, 전체 수출의 약 94%를 차지하는 원유수출 수입(收入)에 힘입어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쿠웨이트는 원유수출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입을 국가 재정의 바탕으로 삼고 있어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적인 세금제도가 시행되지 않음.
 - ※ 단,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15%의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GCC 회원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GCC 회원국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2014년 재정수지는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진행된 국제유가 하락세의 와중에도 GDP 대비 17.4%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동 비율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이 예상되는 2015년에는 보조금 감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8.7%로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 쿠웨이트 정부는 2014년 10월 경유·등유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가격을 3배로 올리고, 향후 휘발유·수도·전기 보조금도 줄여 공공지출을 연 180억 달러 절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또한 2015년 예산을 전년보다 19% 축소한 162억 쿠웨이트디나르로 편성하였음.

※ IMF는 2014년 10월 초, 쿠웨이트가 지난 7년간 3배로 증가한 공공지출을 조만간 줄이지 않으면 저유가의 영향으로 재정적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대에서 안정될 전망

- 2014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을 비롯한 주요 수입품 국제가격의 하락 추세에 힘입어 전년(2.7%) 대비 소폭 상승한 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민간소비 증가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 인상 및 보조금 감축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식료품 수입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이를 상쇄하여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약간 하락한 2.4%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o	2015 ^f
경제성장률	9.6	6.6	1.5	2.3	1.9
재정수지 / GDP	30.0	25.9	25.8	17.4	8.7
소비자물가상승률	4.7	4.5	2.7	2.8	2.4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외부충격에 취약

- 석유산업이 2013년 기준 GDP의 52%, 재정수입의 94% 및 총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민감하게 변동함.

- 아울러 석유화학 분야가 비석유 부문 제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경제 전반이 국제경기 등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1970년대 말까지 걸프만 최북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걸프 지역의 금융 및 중계무역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으나, 1981년 이란-이라크 전쟁에 이어 19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카타르 등에 금융·무역 중심지의 지위를 넘겨주었음.
- 이후로도 이라크로부터의 침략 위협이 상존함에 따라 금융·무역 부문은 상대적 침체를 겪었으나, 2006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사망 이후 투자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음.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6위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자원 부국

- 쿠웨이트는 한반도 면적의 8.0%에 불과한 17,818km²의 영토에 2013년 확인 매장량 기준 1,015억 배럴의 원유(세계 점유율 6.0%, 세계 6위)와 1.8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점유율 1.0%, 세계 18위)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OPEC 회원국임.

다. 정책성과

□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 쿠웨이트 정부는 1985년부터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과 유사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0/11년~2013/14년)은 쿠웨이트를 걸프 지역의 금융·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고 민간 부문을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하여 쿠웨이트 정부는 300억 쿠웨이트디나르(약 1,0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항만 및 신도시 건설, 의료 및 교육 투자 등 사회 인프라 분야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음.

- 2013년 6월 해외 투자자의 지분을 100%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5월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쿠웨이트직접투자증진청(KDIPA)을 신설하였음.
- 그러나 주택·교육·보건 분야 프로젝트와 대형 인프라 건설을 위한 메가프로젝트(mega-project)의 추진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이에 쿠웨이트 정부는 2015년 1월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4/15년~2019/20년)을 확정 발표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전략적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을 재개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 금번 개발계획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각종 규제 및 정부·의회 간 갈등으로 지연되어 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목표달성을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총 455억 쿠웨이트디나르(약 1,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523개 세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제5차 개발계획에서는 제4차 개발계획 기간 중 달성되지 못한 주요 목표들이 계속 추진될 예정임.
- 그러나 산업다각화 육성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 특유의 느린 일처리 속도와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를 고려할 때 주요 목표의 달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표 2> "국가 비전 2030"의 주요 추진사업

구 분	주요 사업내용
교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쿠웨이트 시티의 지하철 건설 (200억 달러 규모) • GCC 회원국들과 연결되는 철도망 건설 (80억 달러 규모) Boubiyan 섬 Mubarak Al Kabeer 항만의 추가 개발 • 쿠웨이트 시티 공항의 새 터미널 건설
에 너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 Zour 2 발전소 프로젝트 • Al Zour 정유공장, 중국 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건설, 베트남 내 석유화학단지 건설
부 등 산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시티(media city) 건설 • Subiya 지역에 250km² 규모의 신도시인 실크 시티(Silk City) 건설: 자연보호구역, 면세 지구, 공항, 대형 비즈니스 센터 등 포함 • 파일라카 섬(Failaka Island) 개발 • 저비용 주택 건설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 지역의 하수 네트워크 및 수처리공장 확장 • Kabd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학교, 협동조합, 대학교의 민영화

3. 대외거래

□ 국제유가 하락세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전망

- 2014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진행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수출 수입(收入)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어, 2014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한 28.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OPEC의 현행 산유량 유지 선언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초과공급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2.0%로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 경상흑자 축소로 외환보유액 증가세도 둔화 전망

- 쿠웨이트는 2011~13년 중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오일머니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해 왔으나,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o	2015 ^f
경 상 수 지	65,738	78,708	69,783	49,397	16,570
경 상 수 지 / G D P	43.6	46.1	40.1	28.1	12.0
상 품 수 지	80,258	95,401	89,992	74,681	39,582
수 출	102,855	119,643	115,854	102,954	66,208
수 입	22,597	24,241	25,862	28,273	26,626
외 환 보 유 액	22,921	25,964	29,353	32,114	31,551
총 외 채 잔 액	37,153	37,462	36,553	34,665	33,696
총 외 채 잔 액 / G D P	24.1	20.9	20.6	19.3	18.6
D S R	3.7	4.6	3.9	4.4	4.4

자료: IMF, EIU, IIF, OECD.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왕실의 권력 독점에 대한 비판 증가

- 쿠웨이트는 1962년 헌법을 제정하여 표면상으로는 입헌군주국이나, 왕실 가족들이 총리는 물론 내무·국방·외무장관 등 정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점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타 GCC 군주국들과 동일함.
- 야권 인사들은 현행 헌법의 183개 조문 가운데 36개 조문을 개정해 국왕에 독점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왕을 비판하는 야권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후 사면하는 등 정치적 억압이 지속되고 있음.

□ 왕실 내부에서 권력 승계와 관련된 분파간 갈등 고조

- 현 군주인 Sabah al Ahmad al Jabir al Sabah 국왕은 2015년 6월에 85세가 되며, 국왕의 이복동생이자 왕위계승서열 1위인 Nawaf al Ahmad 왕세제도 현재 77세의 고령임. 따라서 누가 차기 왕위계승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왕실 내부에 분파가 형성되어 있음.
- 현재 국왕의 두 조카들인 前총리 Nasser Mohammed al-Ahmed 왕자와 前부총리 Ahmed al-Fahad 왕자를 비롯한 몇몇 왕자들이 차기 왕위계승권을 놓고 왕실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여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들 왕자들은 의회 내에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 반복으로 정치적 불안정 지속

- 쿠웨이트는 의회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정당 결성이 금지된 관계로, 총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음.

- 정부와 의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국왕은 통상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개각과 총선을 실시함. 2006년 현 국왕 즉위 후 6차례의 총선이 실시되었으나, 4년 임기를 채운 의회는 한 번도 없음.
- 2012년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야권 후보들과 이슬람주의 성향의 후보들이 전체 50석 중 34석을 획득하였으나, 동년 6월 쿠웨이트 헌법재판소는 국왕의 총선 실시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의회를 해산하였음.
- 이어 2012년 10월 쿠웨이트 정부가 유권자 1명이 4명의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을 1명의 후보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 야권의 반발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음.
- 2012년 12월 1일 새 선거법에 의한 총선 결과 야권의 보이콧 속에서 친정부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으나, 2013년 6월 쿠웨이트 헌법재판소는 재차 의회 해산을 명령하여 7월에 총선이 재실시되었음.
- 분석가들은 새 의회도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며, 쿠웨이트의 정치적 불안정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언론 탄압 등 긴장요인 상존

- 쿠웨이트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20명 이상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군중들의 집회를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
- 2014년 7월에는 친야권 성향의 언론사 소유주, 이슬람주의 성향의 전직 국회의원 등 5명의 국적을 법원의 판결 없이 박탈하여 국내의 반발에 직면하였음.
- 또한, 2015년 1월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유력 일간지 al-Watan에 대해 자본잠식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

□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사회적 불만 잠재

- 쿠웨이트는 왕실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47%가 수니파 이슬람교도이며, 전체 인구의 약 30%를 점유하는 시아파 주민들은 수니파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편임.
- 현재 쿠웨이트 내의 종파간 갈등은 이라크와는 달리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으나, 시아파를 중심으로 하는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계속될 경우 잠재된 불만이 표출되어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3. 대외관계

□ 미국의 외교정책은 쿠웨이트 외교에 지대한 영향

-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침공 당시 미국의 도움을 받은 이후 미국과 긴밀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 동향은 쿠웨이트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쿠웨이트는 GCC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달리 최근 미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은 이라크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IS(이슬람 국가)의 격퇴를 위해 오랫동안 적대관계였던 이란의 도움을 필요로 함에 따라 최근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

□ GCC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는 외교정책의 근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긴장관계 유지

- 쿠웨이트는 2011년 시작된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여타 GCC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시위 금지)과 회유(복지정책)로 무마하는 등 주요 사안에서 GCC 회원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GCC 통합 방위체제의 참여에 대해서는 역내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한 내정간섭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향후에도 여타 회원국들과 더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중립지대(Neutral Zone)에서의 원유·천연가스 공동 생산에 관한 의견 차이에 따른 긴장관계도 지속될 전망이다.

- 2014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립지대의 Khafji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후 양국간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

※ 중립지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국경에 위치한 면적 5,770km²의 지역으로, 1922년 12월 2일의 우카이르 의정서(Uqair Protocol)에 의해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당시는 네지드 왕국) 간의 국경선 확정 당시 미국측 상태로 남았던 지역임. 1938년 쿠웨이트의 Burqan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석유 매장 가능성으로 인해 중립지대에서의 관심이 높아져 분할 귀속에 관한 논의가 거듭된 결과 1969년 12월 18일 양국 정부가 서명하고 1970년 1월 18일 비준된 협정에 따라 중립지대는 양국에 각각 분할 귀속되는 한편, 중립지대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양국이 절반씩 나누어 갖고 있음. 중립지대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50억 배럴, 일일 원유생산량은 약 52만 배럴로 집계됨.

□ 이라크와의 관계는 IS 문제와 배상금 완불이 관건

-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이라크와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나, 쿠웨이트는 이라크가 자국을 침공 및 점령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 UN의 감독하에 산정된 배상금의 전액 지불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는 2015년 말까지 배상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2014년 10월 이라크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 잔액이 57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UN에 통보하여,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쿠웨이트 정부는 이라크 북부를 점령 중인 IS가 쿠웨이트까지 침공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라크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자국 내에서 IS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감시하는 등 여타 GCC 회원국들과 공조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부담 정도와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14년 말 총외채잔액은 GDP의 19.3% 수준으로 추정되며, 단기외채규모는 총수출액의 24.9%, D.S.R.은 4.4%로 추정되어 외채부담 정도와 외채상환태도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국제시장평가

□ OECD 2등급, S&P와 Fitch AA, Moody's Aa2 등급으로 양호한 평가 유지

- OECD는 쿠웨이트에 대하여 2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음. 한편 S&P와 Fitch는 나란히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Moody's는 Aa2 등급을 부여하는 등 주요 기관들의 쿠웨이트에 대한 평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15. 1)	2등급 (2014. 1)
S&P	AA (2011. 7)	AA- (2007. 7)
Moody's	Aa2 (2014. 3)	Aa2 (2009. 6)
Fitch	AA (2014.12)	AA (2014. 6)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9년 6월 11일 (북한과는 2001년 4월 4일 수교)

□ 주요협정 : 항공협정(1982), 문화협정(1983), 통상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1984), 이종과세방지협약(2000), 경제기술협력협정(2005)

□ 2014년 대 쿠웨이트 교역규모는 188.8억 달러 기록

- 2014년 대 쿠웨이트 교역규모는 188.8억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기, 전선 등을 중심으로 19.8억 달러(전년대비 74.4% 증가),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LPG 등을 중심으로 169.0억 달러(전년대비 9.7% 감소)를 기록하였음.

<표 5> 한·쿠웨이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 출	1,584	1,133	1,976	자동차, 전기전자기기, 전선
수 입	18,297	18,725	16,892	원유, 석유제품, LPG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 제3위의 해외 건설시장

- 2014년 말 우리 기업의 대 쿠웨이트 건설공사 수주 누계액은 400억 달러로,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은 우리나라 제3위의 해외건설 시장임.
-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건설공사 계약액은 77.4억 달러로 이라크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특히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NPC)가 정유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고품질 석유제품의 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청정 연료 프로젝트(Clean Fuels Project) 관련 공사가 71.5억 달러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해외직접투자(2014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 20건, 2,379만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쿠웨이트 투자는 2007년에 1,509만 달러로 집계 이후 연간 최고치를 기록한 외에는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주요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업(투자누계액의 42.6%), 제조업, 건설업 등임.

V. 종합 의견

- 쿠웨이트는 자원부국으로 원유수출 수입을 투자하여 공공 부문의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세계 경기침체속 신흥국의 원유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둔화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유지할 전망이다.
- 원유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축소로 그 규모는 축소됨과 동시에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 입헌군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왕실가족들이 정부의 요직을 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국왕과 왕세제의 고령의 나이로 차기 왕위 계승권을 놓고 분파간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 의회 해산과 총선이 반복적으로 실시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GDP의 19.3%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총외채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외채규모는 총수출액의 24.9%, D.S.R.은 4.4%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조사역 임민교(☎02-3779-5727)
E-mail : ymg@koreaexim.go.kr